生活科學硏究 第27輯 2017.
Journal of Human Ecology
Vol. 27, 2017, pp.35-43

『맹자(孟子)』에 언급된 전국(戰國)시대의 음식문화

홍 윤 호

전남대학교 식품영양과학부 명예교수

Food Culture of Warring States Period Described in『Mencius』

Youn-Ho Hong

Emeritus Professor, Division of Food and Nutri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Mencius described social phenomenon of the turbulent period China was disorderly as a series of wars against land and interests, and the people were in a state of torture. Mencius argued that in order to correct this difficulty, the king or the leaders of the country should implement the royal politics, which places importance on the people, lessens the subsidies and taxes, and cares for farming in time. This royal politics is to be able to become a rich and peaceful nation by practicing a civil liberalism based on the people, the righteousness, the example, and securing food and saving the consumption. Mencius emphasized the fact that causality is comparable to food culture, and that it should be conducted in a fair way, excluding the absence of the idolatry of power. The king advised that if the people were in trouble, they would open the food warehouse quickly as a parent to prevent hunger. At that time, people in agriculture society used grains, vegetables, dried dates, fish, meat, etc. as stocks, and grows, bear soles seemed to have been favored as dainty foods. When parents left the world, everyone continued their tradition of three years in mourning and eating thin gruel or porridge. It was advised that the politics for the people would be evident in the ruling that takes good care of the elderly.

Key words: Mencius, philosophy, food culture, securing food, elderly welfare

논문접수일 : 2017. 11. 30., 심사완료일 : 2017. 12. 5., 게재확정일 : 2017. 12. 22.

Ⅰ. 서 론

중국 역사에서 전국(戰國)시대는 기원전 403년부터 진(秦)나라 시황제가 통일하기 전인 기원전 221년까지 약 200년간의 시기를 말한다. 이 시대에는 앞의 춘추시대(BC 771~BC 403)에 못지않게 여러 제후국들이 패권을 다투는 전쟁이 빈번하여 결국에는 진(秦), 조(趙), 위(魏), 한(韓), 제(齊), 연(燕), 초(楚) 등 전국칠웅(戰國七雄)으로 분할되었다(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7). 당시 여러 지역에서는 신하가 주군을 내치는 하극상도 많이 일어나고 전쟁의 와중에서 백성들의 생활은 도탄에 빠졌으며 민심이 불안하였다(박 등, 2016). 한편, 이 시대에는 춘추시대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제자백가(諸子百家)들로 학문의 중흥기를 이루었고 토지의 사유제와 철기를 사용한 농사기술의 발달, 화폐의 유통 등이 행해졌다(박, 2015).

조 등(2014)에 의하면, 중국의 주(周)나라 시대는 철기의 이용이 본격화되어 호미, 낫 등 철제 농기구들이 흔히 농사에 이용되었으며 황무지가 개간되고 경작지가 확장되어 농업기술이 발전하였다. 이 시대에는 농작물로 벼, 수수, 보리, 조, 콩, 파, 마늘, 참깨, 포도, 가지, 토란 등이 재배되고 중원지역에서는 이모작도 이루어졌다. 천자(天子, 왕 또는 임금)의 식생활에는 주식과 부식의 결합으로 규정되어 쌀밥과 소고기국, 보리밥과 기러기고기국, 메기장밥과 양고기국, 찰기장밥과 개고기국, 조밥과 돼지고기국 등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그리고 조미료로는 주로 산초, 생강, 계피, 마늘, 꿀 등이 사용되었다(이, 2010).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중국문헌으로 공자(孔子)가 정리한 시경(詩經)에는 농부들의 생활과 그들의 음식에 관하여 묘사하는 등 연회와 농업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김, 2010).

전국시대(BC 403~BC 221)는 춘추시대 이후의 시기이므로 농사법의 개량으로 생산이 증대되고 음식문화도 다소 변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맹자』에 서술된 맹자의 철학, 사회배경 그리고 음식문화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 관련 문헌을 참고로 하여 비교,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맹자(孟子)의 생애 요약

김(2013)의 역주에 따르면, 맹자는 공자(孔子, BC 552~BC 479)가 죽은 지 100여년 후인 기원전 372년에 추(鄒) 땅(나라)에서 태어났다. 추 땅은 지금의 산동성(山東省) 추현(鄒縣) 남쪽 지방으로 공자의 고향이며 노(魯)나라의 도읍이었던 곡부(曲阜)에서 멀지 않은 곳이다. 맹자의 성은 맹(孟)이며 이름은 가(軻)이고 자는 자여(子輿) 또는 자거(子車)라고도 알려져 있다. 맹자는 공자의 학문을 공자의 손자인 자사(子思)에게 직접 배웠다고도 하고 자사의 제자에게 배웠다고도 전한다. 맹자 자신이 공손추-상(公孫丑-上)편에서 "내가 아직 행하지 못하지만, 나의 소원은 공자를 배우는 일이다(吾未能有行焉, 乃所願則學孔子也.)"라고 한 바대로 공자를 가장 위대한 성인(聖人)으로 존경하며 사숙(私淑)하였다고 전해진다(대유학당, 2009).

맹자는 15세부터 노나라에서 글을 배우고 40세부터는 부동심(不動心)의 경지에 이르러 추나라의 목공(穆公)을 만나 정치를 의논하고 조언하였다. 이후 제나라를 비롯하여 추, 임, 노, 송, 등, 양, 제나라 등을 드나들며 왕도정치(王道政治)를 주장하고 자문을 하였다. 특히 제나라에서는 경(卿)의 벼슬도 하여 직접 정치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군주들이 추구하던 패권정치와 부국강병책에 맹자의 인(仁)과 덕(德)을 주장하는 왕도정치의 사상은 현실감이 없다는 이유로 자주 거절당하였다. 맹자는 그의 나이 62세에 노나라를 끝으로 20여 년간의 주유천하를 마감하고 고향인 추나라로 돌아와 BC 289년 83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학문연구과 후진양성에 매진하였다. 그의 제자로는 고자(告子), 고자(高子), 공도자(公都子), 공손추(公孫丑), 도응(桃應), 만장(萬章), 맹계자(孟季子), 맹중자(孟仲子), 서벽(徐辟), 악정자(樂正子), 옥로자(屋盧子), 주소(周霄), 진대(陳代), 진진(陳臻), 충우(充虞), 팽갱(彭更), 함구몽(咸丘蒙) 등 17인이 잘 알려져 있다(김, 2013).

2. 『맹자(孟子)』

『맹자』는 각 편의 첫머리 글자를 재목으로 삼아, 양혜

왕(梁惠王), 공손추(公孫丑), 등문공(騰文公), 이루(離婁), 만장(萬章), 고자(告子), 진심(盡心) 등 7편, 261장, 34,685자로 이루어져 있다.『맹자』는 후한(後漢) 시대의 학자인 조기(趙岐, 106~201)가 각 장구를 상편과 하편으로 나누었는데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대유학당, 2009). 이『맹자』는 맹자 자신이 직접 지은 책이라는 설, 맹자의 별세 후에 공손추, 만장 등과 같은 제자들이 정리하여 기록하였을 것이라는 설과 맹자가 지은 글에 제자들의 글들도 섞여 있다는 설 등이 분분한 데, 맹자 자신의 글과 그의 제자들의 토론 등을 거친 합작품이라는 주장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도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 2013).

『맹자』는 일정한 주제로 엮어진 책이다. 즉, 양혜왕편, 공손추편, 등문공편에서는 당시 각 나라의 권력자들과 나눈 대화들을 기록하였는데 주로 왕도정치에 관해서 논한 정치론에 해당된다(박, 2012). 이루편 및 만장편에는 역대 성인들에 대한 문답을 수록하였고, 고자편에는 당시 유명한 제자이며 학자였던 고자(告子)와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람의 본성에 관한 논쟁들을 포함하여 서술하였다. 그리고 진심편에는 앞에서 전개되었던 이론들을 정리하면서 사람의 반성과 실천을 주장하고, 요(堯), 순(舜), 우(禹), 탕(湯), 문왕(文王), 무왕(武王), 주공(周公), 공자(孔子) 등으로 내려오는 도통(道統)을 서술하였으며 자신의 처지를 말하여 자신이 도통을 이은 적손(嫡孫)임을 밝히고 있다.

『맹자』의 문장은 간결하면서도 기세(氣勢)가 있고 설득력이 뛰어나다고 예로부터 칭송되어 왔다. 맹자는 스스로 "나는 남의 말을 잘 이해하고, 나의 맑고 한없는 기운(我知言, 我善養吾 浩然之氣.)을 잘 기른다"고 공손추-상(公孫丑-上)편애서 언급하였는데, 이 호연지기(浩然之氣) 정신이 글에도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맹자』에서는 저자가 꾸며낸 얘기인 우언(寓言)으로 이루어진 비유(譬喩)를 많이 사용해서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며 이해를 돕는다.『맹자』에서는 또한 시경(詩經)과 서경(書經)을 자주 인용하여 자기의 이론을 전개하는 근거로 삼기도 하고 자신이 얘기하는 사실들을 증명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유학의 경전 가치를 높이며 이 두 경전의 위상을 제고하는 결과도 가져왔다.『맹자』의 이러한 문장의 우수한 특성 때문에 독자들에게 다른 어떤 경전들보다도 더 널리 읽히고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김, 2013).

3.『맹자』에 언급된 사상, 철학과 식량의 의미

맹자 사상의 가장 핵심적 주장은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어짊(仁)과 의로움(義)의 실천이다. 맹자가 살았던 시대는 계속되는 전쟁의 혼란 속에서 권력이나 이익보다도 어짊과 의로움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역설하였다(김 등, 2014).

맹자의 실천윤리를 보면, 첫째, 훌륭한 덕목은 더욱 더 넓히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훌륭한 덕목이란 공손추-상에서 언급된 "어짊, 의로움, 예의, 지혜(惻隱之心 仁之端也, 羞惡之心 義之端也, 辭讓之心 禮之端也, 是非之心 知之端也.)"를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그는 공손추-상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호연지기를 잘 기를 것을 주장하였다. "이 호연지기는 지극히 크고 강하며 곧아서 잘 기르고 해치지 않는다면, 곧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게 된다(其爲氣也, 至大至剛, 以直養而無害, 則塞于天地之間.)". 그러므로 호연지기는 사람의 의로움이 내부에 생겨나도록 하는 맑고도 끝이 없는 존재인 것이다.

셋째, 사람들은 인의를 버리고 놓아둔 채 되찾으려 하지 않으므로 고자-상편에서 "학문의 도는 다름이 아니라 버리고 놓아둔 마음 즉, 놓여난 마음(放心)을 되찾을 줄 알아야 한다(學問之道 無他, 求其放心而已矣.)" 라고 하였다.

넷째, 쓸 데 없는 욕심이 적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진심-하편에서 "마음을 수양하는 데에는 욕심을 적게 갖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養心 莫善於寡欲.)" 고 하였다.

맹자는 힘센 자들과 간악한 자들이 판치는 세상에서도 사람은 모두가 처음부터 착한 본성(本性)을 타고났기 때문에 누구나 성인(聖人)이 될 수 있다는 성선설(性善說)을 제창하였다(조, 2014).

맹자는 정치에서도 전술한 바와 같이 어짊과 의로움을 바탕으로 하여 올바로 다스리는 왕도정치를 주장하였다. 그는 권력보다도 어짊과 의로움이 더욱 소중한 것으로 믿고 있었다. 맹자는 나라의 근본은 백성임을 강조하였는데 진심-하편에서 "백성은 귀하고, 나라는 그 다음이며 임금은 가벼운 존재이다(民爲貴, 社稷次之, 君爲

輕.)" 라고 설파하였다.

맹자는 어짊을 곡식의 충실함에 비교하여 고자-상편에서 "오곡은 곡식 종자 중에서도 좋은 것이나 참으로 여물지 않으면 돌피만 못하니, 어짊도 또한 여물게 하는 데 달려 있을 따름이다(五穀者, 種之美者也. 苟爲不熟, 不如荑稗. 夫仁亦在乎熟之而已矣.)" 라고 하며 어짊은 사람의 덕성 중에 가장 중요하므로 이의 성숙을 위해 노력할 것을 독려한 것이다.

맹자는 백성이 살아가는 도리에 대하여 등문공-상편에서 "일정한 직업이 있는 사람은 일정한 마음을 갖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은 일정한 마음이 없는 것이니, 만일, 일정한 마음이 없으면, 방탕과 사치를 하게 될 것이다. 급기야 죄에 빠진 다음에 죄에 따라 그들을 형벌한다면, 이는 백성들을 그물질하는 것이다(民之爲道也, 有恒產者有恒心, 無恒產者無恒心. 苟無恒心, 放辟邪侈, 無不爲已. 及陷乎罪, 然後從而刑之, 是罔民也.)" 라고 하였다. 이는 사람들이 일정한 생업을 통해 안정된 수입을 가지고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함과 임금은 백성들의 생업과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줄 것을 강조하는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맹자는 제나라 사람으로 청렴하다고 알려진 진중자(陳仲子)의 언행을 예를 들어 진심-상편에서 "진중자는 의(義) 아닌 방법으로 제나라를 주어도 받지 않을 것을 사람들이 다 믿는다. 그러나 그의 의는 한 그릇의 밥과 한 사발의 국을 버리는 의미이다. 믿음에는 인륜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친척, 군신과 상하가 없으니 그 작은 의리로 큰 의리를 믿는 일이 어찌 가능하겠는가? (仲子, 不義與之齊國而弗受, 人皆信之, 是舍簞食豆羹之義也. 人莫大焉亡親戚、君臣、上下, 以其小者信其大者, 奚可哉.)" 라고 언급하며 진중자는 물질적인 면에서는 의로우나 윤리적인 면에서는 의롭지 못하다고 비판하였다.

명예에 관하여 맹자는 진심-하편에서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본성을 속이고 천승의 나라를 사양할 수 있지만, 진실로 명예를 존중하는 사람이 아니면, 한 그릇의 밥과 한 사발의 국에도 욕심의 기색이 얼굴에 나타난다(好名之人, 能讓千乘之國, 苟非其人, 簞食豆羹見於色.)" 라고 말하고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두 위선자들이라고 비난하였다.

맹자가 이루-상편에서 그의 제자 악정자(樂正子)에게 "자네가 자오(子敖, 왕환(王驩)의 字)를 따라 온 것은 한갓 먹고 마시기 위해서이다. 나는 자네가 옛 도를 배워서 먹고 마시는 데 쓰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네(孟子謂樂正子曰, 子之從於子敖來, 徒餔啜.我不意子學古之道, 而以餔啜也.)" 라고 말하며 자기가 싫어하는 제나라 선왕(宣王)의 총신인 자오를 따라온 제자를 보고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나타내었다.

맹자가 제자인 팽갱(彭更)이 선비가 일없이 밥을 얻어먹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자 맹자는 등문공-하편에서 "여기에 사람이 있는데, 들어오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가면 어른들에게 공손하며, 선왕의 도를 지켜 후세의 학자를 기다리는데도 자네에게 밥을 얻어먹지 못하니, 자네는 어찌하여 목수와 수레 만드는 사람은 높이면서 인의(仁義)를 행하는 사람은 가벼이 여기는가? 자네에게 공이 있어 밥을 먹일 만하면 먹이는 것이다(於此有人焉, 入則孝, 出則悌, 守先王之道, 以待後之學者, 而不得食於子. 子何尊梓匠輪輿而輕爲仁義者哉. 其有功於子, 可食而食之矣.)" 라고 대답하였다. 이것은 맹자가 정당하게 일하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주어야 한다는 평등사상을 피력한 것으로 생각된다.

맹자가 이루-상편에서 언급하기를 "군주가 인정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그 군주를 부유하게 하면, 모두 공자님께 버림을 받을 자들이다. 하물며 군주를 위해 힘써 싸워서 땅을 빼앗기 위한 전쟁에서 사람을 죽여 들판에 가득하며, 성(城)을 다툰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이 성에 가득한 경우에 있어서이겠는가? 이것은 이른바 토지를 차지하기 위해 사람고기를 먹인다는 것이니, 죄가 죽음으로도 용납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다(君不行仁政而富之, 皆棄於孔子者. 況於爲之强戰, 爭地以戰, 殺人盈野, 爭城以戰, 殺人盈城. 此所謂率土地而食人肉, 罪不容於死.)" 라고 하였는데 이는 의롭지 않은 전쟁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

맹자는 이루-하편에서 순(舜)임금의 신하로 치수(治水)를 담당하였던 우(禹)와 농사를 담당하였던 직(稷)을 칭송하며 "우는 천하에 물에 빠진 자가 있으면 마치 자신이 그를 빠지게 한 것처럼 생각하셨고, 직은 천하에 굶주린 자가 있으면 마치 자신이 그를 굶주리게 한 것처럼 생각하셨다. 따라서 이처럼 급박하게 여기신 것이다(禹思天下有溺者, 由己溺之也, 稷思天下有飢者, 由己飢之

也, 是以如是其急也.)" 라고 말하며 임금을 보필하는 신하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백성들을 살피고 대해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고 있다.

맹자는 여러 나라가 어지럽게 패권다툼을 하는 세상을 오직 올바른 도리로써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였던 사상가였다. 그의 굳은 신념과 선각자적인 사상 및 철학은 유학(儒學)을 한층 더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동양인들의 사상에 살아 호흡하고 있다고 김(2013)은 평가하였다.

4. 『맹자』에 언급된 음식문화

1) 백성들의 생업과 식량에 관한 맹자의 철학

전국시대는 철기의 발달과 농사법의 개량으로 생산이 증대되고 음식문화도 많이 변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2010)에 의하면, 당시에는 솥의 등장으로 조리방식이 다양화 되었는데 북방에서는 불에 그을리거나 태우는 소(燒), 불에 굽는 고(烤), 삶는 자(煮), 끓이는 회(燴) 법 등이 사용되었고 남방에서는 찌는 증(蒸), 오래 재워두는 양(釀), 재에 묻어 굽는 외(煨), 오래 삶는 돈(炖) 법 등의 조리방법이 활용되었다고 한다. 이 시대는 농경사회로 백성들이 주로 농업에 종사하였는데 일정한 곳에서 살면서 적절한 시기에 파종하고 일기가 순조로우며 관리를 잘 하여 풍작을 이룬다면, 세금을 내고 식량이 충분해야 가족들도 행복해 질 수 있었다. 맹자는 양혜왕-상편에서 "곡식, 물고기, 자라 등 식량이 넉넉하고 재목이 남아서 백성들이 살아있는 사람을 봉양하고 돌아가신 사람을 장례지내는 데 여한이 없게 하는 것이 왕도정치의 시작이다(穀與魚鱉不可勝食, 材木不可勝用, 是使民養生喪死無憾也. 養生喪死無憾, 王道之始也.)" 라고 강조하였다.

왕도정치의 기본은 인(仁)의 정치로 필요시에 백성을 도와주는 것인데(박 등, 2016), 양혜왕-상편에서 "개와 돼지가 사람이 먹을 것을 먹는 데도 단속할 줄 모르고, 길가에 굶어죽는 시체가 있는데도 창고를 열 줄 모르며, 사람이 죽으면 내가 아니라 흉년 때문이라고 변명하니 이 어찌 사람을 찔러죽이고 말하기를 내가 아니고 무기가 찔렀다고 하는 것과 다르겠는가?(狗彘食人食而不知檢, 塗有餓莩而不知發 人死, 則曰 非我也, 歲也 是何異於刺人而殺之, 曰 非我也 兵也.)" 라고 반문하였다.

맹자는 또한 양혜왕-상편에서 "푸줏간에 살찐 고기가 있고 마구간에 살찐 말이 있는데도, 백성들은 굶주린 얼굴빛을 보이고 들에 굶어죽은 시체가 있으면, 이는 짐승을 거느려 사람을 잡아먹게 하는 것이니 왕이 백성의 부모랄 것이 어디 있겠는가?(庖有肥肉, 廐有肥馬, 民有飢色, 野有餓莩, 此率獸而食人也, 惡在其爲民父母也.)" 라고 잘못된 정치 태도를 비판하며 어진 정치를 강조하였다(조, 2014).

맹자는 농사의 규모에 따라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하였는데, 양혜왕-상편에 "5묘(마지기) 넓이의 집둘레에 뽕나무를 심으면, 나이 50세인 사람이 비단옷을 입을 수 있고 닭, 돼지와 개를 기르는 경우 번식할 때를 놓치지 않으면, 나이 70인 사람이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며 100묘의 밭을 경작하는데 농사 때를 빼앗지 않으면, 여덟 식구의 집이 굶주리지 않을 수 있다. 학교의 가르침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이고 효도와 공손의 의리를 거듭 가르치면,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들이 길에서 짐을 지거나 이지 않을 것이다. 노인들이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젊은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춥지 않다면, 왕 노릇을 못할 사람은 없다(五畝之宅, 樹之以桑, 五十者可以衣帛矣, 雞豚狗彘之畜, 無失其時, 七十者可以食肉矣, 百畝之田, 勿奪其時, 八口之家可以無飢矣, 謹庠序之敎, 申之以孝悌之義, 頒白者不負戴於道路. 老者衣帛食肉, 黎民不飢不寒, 然而不王者, 未之有也.)" 라고 서술하였다. 이는 국가가 농사철에 백성들을 부역이나 전쟁을 위해 동원하지 않아야 때를 잘 맞추어 농사지을 수 있고 식량이 풍족하며 예의가 바로 서면 온 나라가 평화롭게 된다는 왕도론(王道論)인 것이다(김, 2013; 조, 2014).

전국시대에는 잦은 전쟁으로 군대의 이동이 많았는데 당시의 상황을 맹자는 양혜왕-하편에서 "많은 군사가 오가며 양식을 먹어서 굶주린 자가 먹지 못하고, 수고하는 자가 쉬지 못하며, 곁눈질 하면서 서로 참소하여 마침내 백성들이 원망하고 미워하는데도, 관료들은 명령을 거스르고 백성들을 학대하여 술 마시고 음식 먹기를 물 쓰듯이 낭비하고 놀이에 빠져서 제후의 근심이 되고 있다(師行而糧食, 飢者弗食, 勞者弗息. 睊睊胥讒, 民乃作慝. 方命虐民, 飮食若流. 流連荒亡, 爲諸侯憂.)" 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므로 임금이 이런 폐단을 속히 개선하고 전쟁을 억제해야 백성들이 배부르고 편안하게 살며 함께 즐

길 수 있는 여민동락(與民同樂)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맹자는 또한 "만일, 임금이 재물을 좋아한다면, 백성과 더불어 좋아해야 왕 노릇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王如好貨, 與百姓同之, 於王何有.)" 라고 하며 그의 애민정신(愛民精神)을 강조하였다(조, 2014).

추(鄒)나라의 임금 목공(穆公)이 백성들이 전쟁 중에 고관들의 죽음에 무관심하고 도움을 주지 않는 이유를 묻자 맹자는 양혜왕-하편에서 "흉년과 기근이 든 해에 임금의 백성 중에 늙고 약한 자들은 웅덩이와 골짜기에 구르고, 젊은이들은 흩어져 사방으로 간 자가 수천 명이나 됩니다. 임금의 곡식창고가 가득 차고 물자창고가 충만하였는데도 유사가 백성을 위해 고하지 않았으니 이는 윗사람이 태만하여 아랫사람에게 잔학하게 대한 것입니다. 임금이 어진 정치를 행하면 이 백성들이 그 윗사람들을 위해 죽을 것입니다(凶年饑歲, 君之民老弱轉乎溝壑, 壯者散而之四方者, 幾千人矣, 而君之倉廩實, 府庫充, 有司莫以告, 是上慢而殘下也, 君行仁政, 斯民親其上, 死其長矣.)" 라고 대답하였다. 이는 맹자가 임금을 비롯한 높은 자리에 앉은 신하들은 백성을 귀하게 여기고 도와주어야 백성들도 관료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민본주의(民本主義) 철학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손추-상편에서 맹자는 "제(齊)나라에 또한 왕업을 이룬 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 지금보다 더 드물었던 적이 없었으며, 백성들이 학정에 시달린 적이 지금보다 더 심한 적이 없었다. 굶주린 자에게는 먹이기가 쉽고 목마른 자에게는 마시게 함이 쉬운 것이다(且王者之不作, 未有疏於此時者也, 民之憔悴於虐政, 未有甚於此時者也. 飢者易爲食, 渴者易爲飮.)" 라고 언급하였다. 당시의 임금이 인정(仁政)을 베풀지 못하여 백성들이 학정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현실과 어진 임금을 기다리는 간절함이 배어 있는 내용이라고 하겠다.

2) 전국시대의 음식문화

맹자가 살았던 전국시대에도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하(夏)나라, 은(殷)나라, 주(周)나라 등 삼대 시대에서와 같이 천자와 서민이 상복을 입고 미음이나 죽을 먹으며 삼년상을 치루는 전통을 이어간 것(吾嘗聞之矣, 三年之喪, 齊疏之服, 飦粥之食, 自天子達於庶人, 三代共之.)" 을 등문공-상편에서 기술하고 있다.

맹자는 어른의 봉양에 관하여 진심-상편에서 주(周)나라 문왕(文王)인 서백(西伯)의 예를 들어 "이른바 서백이 노인을 잘 봉양한다는 것은 그 밭을 경작하고 집을 지어서 가르치며 그 처자를 인도하여 그 부모를 봉양하게 하는 것이다. 노인의 나이 50세에 비단이 아니면 따뜻하지 않으며, 70세에 고기가 아니면 배부르지 않으니, 이를 춥고 굶주림이라 이른다. 문왕의 백성 가운데 춥고 굶주린 노인이 없다고 한 것이 이를 의미한다(所謂西伯善養老者, 制其田里, 敎之樹畜, 導其妻子, 使養其老. 五十非帛不煖, 七十非肉不. 不煖不飽, 謂之凍. 文王之民, 無凍餒之老者, 此之謂也.)" 라고 언급하며 백성을 위하는 어진 정치는 노인을 잘 돌보아 주는 다스림에서 잘 드러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맹자는 나라를 잘 다스리는 방법에 대하여 진심-상편에서 "농사를 잘 짓게 농토를 다스리며 세금을 조금 거두면 백성을 부유하게 할 수 있다. 먹기를 때에 맞게 하며 사용하기를 예(禮)로써 하면 재물을 다 쓰지 못한다(易其田疇, 薄其稅斂, 民可使富也. 食之以時, 用之以禮, 財不可勝用也.)" 라고 언급하며 백성들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먹을 것과 쓸 것을 예의에 맞도록 풍족하게 제공하면 부유해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권력과 옛 법도에 관하여 맹자는 진심-하편에서 "높은 사람을 설득할 때에는 가볍게 여겨서 그 부귀가 높은 것을 보지 말아야 한다. 집의 담 높이가 두어 길 되고 서까래 머리가 몇 자가 되지만, 나는 출세하더라도 그렇게 집을 짓지는 않겠다. 식사 때에는 큰 상에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시중하는 여자들이 수백 명이지만, 나는 출세하더라도 그렇게 살지는 않겠다. 크게 즐기며 술을 마시고 말달리며 사냥을 하고 뒤에는 천대의 수레가 따라다니는데, 나는 출세하더라도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그러한 짓들은 모두 나로서는 하지 않을 것들이다. 내가 가진 것은 모두가 옛날의 법도이다. 내 어찌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겠는가!(說大人, 則藐之, 勿視其巍巍, 然堂高數仞, 榱題數尺, 我得志弗爲也. 食前方丈, 侍妾數百人, 我得志弗爲也. 般樂飮酒, 驅騁田獵, 後車千乘, 我得志弗爲也. 在彼者, 皆我所不爲也. 在我者, 皆古之制也, 吾何畏彼哉.)" 라고 언급하였다. 맹자는 올바른 학문을 한 사람은 권력자나 귀족들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기죽지 말고 언제나 당당하고 검소하게 자신이 믿는 옛 법도를 지키

며 그들을 설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세금에 관련하여 맹자는 진심-하편에서 "베와 실로 내는 세금, 곡식과 쌀로 내는 세금 그리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세금이 있으니, 군자는 그 하나만 쓰고 나머지 둘은 느슨하게 해 준다. 동시에 그 둘을 쓰면 백성이 굶어 죽는 일이 있고, 그 셋을 동시에 쓰면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지 못하고 흩어질 것이다(有布縷之征, 粟米之征, 力役之. 君子用其一, 緩其二, 用其二而民有殍, 用其三而父子離.)" 라고 경고하였다. 이는 나라가 백성들로부터 너무 많은 세금을 걷어 들이고 나랏일에 백성들을 너무 자주, 오래 동원하면 민생이 파탄에 이를 수 있음을 경계한 것이다.

제나라가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자 맹자의 제자 진진(陳臻)이 "백성들이 다 선생님께서 장차 임금에게 권하여 다시 당(棠)고을의 곡식창고를 열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다시 그러실 수는 없습니까?" 라고 물으니 맹자가 진심-하편에서 대답하기를 "내가 다시 나서면 진나라 선비 풍부(馮婦)가 옛날에 잘 하던 맨주먹으로 호랑이를 잡으려다 비웃음을 산 것과 같은 꼴이 된다(齊饑, 陳臻曰, 國人皆以夫子將復爲發棠, 殆不可復. 孟子曰, 是爲馮婦也.)" 라고 사양하였다. 맹자는 임금에게 신임을 받을 때에는 권고하지만, 불신(不信)일 때에는 무모한 권고를 삼가야 한다는 조언을 한 것이다.

임금의 군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맹자는 진심-상편에서 "먹이되 사랑하지 않으면 돼지로 대접하는 것이고, 사랑하되 공경하지 않으면 짐승으로 기르는 것과 같다. 공경은 아직 폐백을 받들지 않았을 때에 하는 것이다. 공경한다고 하면서 진실이 없으면 군자가 헛되이 구속되어 머물지 않는다(食而弗愛, 豕交之也, 愛而不敬, 獸畜之也. 恭敬者, 幣之未將者也. 恭敬而無實, 君子不可虛拘.)" 라고 하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공경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맹자의 제자인 만장이 나라의 임금이 군자를 기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기른다고 하는지 물으니, 맹자가 만장-하편에서 대답하기를 "임금이 명하여서 가지고 오면 재배하고 머리를 조아려 받는다. 그 뒤에 창고지기는 곡식을 대주며 푸줏간에서는 고기를 대주는데, 이때부터는 임금의 명으로 가져오지 않는 것이다(以君命將之, 再拜稽首而受. 其後廩人繼粟, 庖人繼肉, 不以君命將之.)" 라고 하며 군자를 번거롭게 절하지 않도록 올바로 대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충고하였다.

맹자는 고자-상편에서 "한 그릇의 밥과 한 그릇의 국을 얻으면 살고, 얻지 못하면 죽을지라도, 욕하면서 주면 길 가던 사람도 받지 않으며, 발로 차서 주면 받아먹는 걸인도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一簞食, 一豆羹, 得之則生, 弗得則死. 嘑爾而與之, 行道之人弗受, 蹴爾而與之, 乞人不屑也.)" 라고 말하며 가난한 사람에게도 어진 마음으로 예의를 갖추어 의로운 일을 해야 함을 조언하였다.

맹자가 범(范) 땅에서 제나라의 수도로 갔는데, 진심-상편에서 제나라의 위엄이 있는 왕자를 바라보고 아! 하고 탄식하며 "환경이 사람의 기상을 변화시키며 음식의 영양이 몸을 변화시킴이 크도다. 거처하는 환경이여! 모두 다 사람의 자식이 아닌가!(居移氣, 養移體, 大哉居乎, 夫非盡人之子與.)" 라고 말하였는데, 사람은 생활 방법과 음식에 따라 신체의 풍모와 성품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다.

맹자는 진심-상편에서 "굶주린 자는 맛있게 먹고 목마른 자는 달게 마신다. 그러나 이것은 음식의 바른 맛을 얻지 못한 것으로, 굶주리고 목마른 것이 미각을 해친 것이다. 어찌 오직 입과 배에만 굶주림과 목마름의 해침이 있겠는가? 사람의 마음에도 또한 그 해침이 있는 것이다(飢者甘食, 渴者甘飮, 是未得飮食之正也, 飢渴害之. 豈惟口腹有飢渴之害, 人心亦皆有害.)" 라고 말하며 가난과 굶주림은 사람의 심성도 해칠 수가 있으나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꿋꿋한 사람이 될 것을 권장하였다.

맹자는 음식을 좋아하는 것에 대하여 고자-상편에서 "진나라 사람이 구이를 즐기는 것이 내가 구이를 즐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 모든 사물에 또한 그러한 것이 있으니, 그런 즉 구이를 즐겨하는 원인도 또한 밖에 있는 것인가?(耆秦人之炙, 無以異於耆吾炙. 夫物則亦有然者也, 然則耆炙亦有外與.)" 라고 반문하며 음식의 기호는 인간의 본성이라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진심-하편에서 제자 공손추(公孫丑)가 맹자에게 "회, 구운 고기와 양조(말린대추) 중에서 어떤 것이 맛있습니까? 라고 묻자 회나 구운 고기가 맛있다(膾炙與羊棗孰美, 孟子曰, 膾炙哉.)" 고 대답하였다. 당시의 맹자는 고기를 회와 구이로 만든 식단을 즐겼던 것으로 추정된다.

맹자가 고자-상편에서 "물고기도 내가 원하는 것이며

곰발바닥도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두 가지를 겸하지 못한다면, 물고기를 포기하고 곰발바닥을 취할 것이다. 사는 것도 내가 바라는 것이며 의로움도 또한 내가 바라는 것이지만, 두 가지를 겸하지 못한다면, 사는 것을 포기하고 의를 취할 것이다(魚, 我所欲也, 熊掌, 亦我所欲也, 二者不可得兼, 舍魚而取熊掌者. 生, 亦我所欲也. 義, 亦我所欲也, 二者不可得兼, 舍生而取義者也.)" 라고 언급하며 사람에게는 단순한 생물학적 삶보다 의로움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특이한 점은 이 당시에도 사람들은 곰발바닥을 별미 식품으로 여겨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루-하편에서 "제나라의 한 남자가 외출할 적마다 술과 고기를 배불리 먹고 돌아오곤 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궁금하여 누구와 함께 식사했는가 하고 물어보면, 모두 부귀한 사람이라고 자랑했다. 수상히 여긴 아내가 다음 날 남편의 외출 시 미행해 보니 남편은 성곽 묘지의 제사지내는 데로 가서 남은 음식을 빌어먹는 것이었다. 아내는 집에 돌아와 한탄하며 울었는데,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와 아내에게 교만하게 굴었다(齊人有一妻一妾而處室者, 其良人出, 則必饜酒肉而後. 其妻問所與飮食者, 則盡富貴也. 其妻告其妾曰, 良人出, 則必饜酒肉而後反, 問其與飮食者, 盡富貴也, 而未嘗有顯者來, 吾將瞷良人之所之也. 蚤起, 施從良人之所之, 遍國中無與立談. 卒之東郭墦間, 之祭者, 乞其餘, 不足, 又顧而之他, 此其爲饜足之道也. 其妻歸, 告其妾曰, 良人者, 所仰望而終身也. 今若此. 與其妾訕其良人, 而相泣於中. 而良人未之知也, 施施從外來, 驕其妻妾.)". 맹자는 위와 같은 우화(寓話)를 소개하면서 "군자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 부귀와 출세를 위하여 천박하고 허풍떠는 처세 행태를 목격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며 슬퍼하지 않는 아내들은 없을 것이다(由君子觀之, 則人之所以求富貴利達者, 其妻妾不羞也, 而不相泣者, 幾希矣.)" 라고 하며 남편들이 정직하고 성실하며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고 충고하였다.

맹자는 고자-상편에서 "음식만 밝히는 사람을 천하게 여기니, 그 작은 것을 간직하고 기르면서도 큰 것을 잃기 때문이다. 음식만 밝히는 사람이 큰 것을 잃지 않는다면, 곧 입과 배가 어찌 다만 한 자나 한 마디의 살덩어리에 지나지 않을 뿐이겠는가?(飮食之人, 則人賤之矣, 爲其養小以失大也. 飮食之人無有失也, 則口腹豈適爲尺寸之膚哉.)" 라고 하며 사람에게는 육체보다도 마음과 뜻이 중요함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맹자』에서 맹자는 식품영양 및 보양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많이 피력하지 않았지만, 음식의 중요성과 철학 및 정치적 윤리에 관하여는 자주 언급하였다. 이는 그의 개인적인 검소하고 강직한 성향과 그가 살던 사회가 워낙 혼란하고 삶이 절박하며 궁핍한 전국시대였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논어』에 기술된 공자는 식품에 관한 해박한 지식, 위생적인 식생활, 식생활문화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사료되었다(홍, 2016).

Ⅲ. 결 론

중국 전국시대는 전쟁의 와중에서 백성들은 고통스러웠으므로 맹자는 공자의 법통을 이어 어짊과 의로움 강조하며 바르고 평화로운 사회를 세우려는 노력을 하였다. 그가 주창한 성선설과 왕도정치는 임금이 착한 백성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생업에 종사하는 것을 도우며 희로애락을 함께하여 풍요롭게 하는 애민정신과 민본주의의 기본이라고 하겠다. 맹자는 임금이 백성들을 전쟁과 노역에 자주 동원하지 말고, 백성들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주며 먹을 것과 쓸 것들을 예의를 갖추어 풍족히 제공하면 부유해질 것이라고 권장하였다. 맹자는 사람은 생활 방법과 음식에 따라 신체의 풍모와 성품이 달라질 수 있고 기근과 목마름이 사람의 심성도 해칠 수 있다고 하며 개인의 생활습관과 음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곡류, 야채, 말린 대추, 물고기, 육류 등을 식생활에 이용했으며 고기는 회 또는 구이를 선호하였고 자라, 곰발바닥 등은 고급 별미식품으로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전국시대의 사람들은 장례를 가장 큰 일로 여겼으며 삼년상을 누구나 다 지켰고 조상들의 제사도 경건하게 모셨다. 맹자는 노인들을 잘 모셔야 한다는 경로 윤리의 실천을 의, 식, 주생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였고 좋은 덕목으로 삼았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공손하게 도와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이는 오늘날에도 높이 평가하고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김교빈·전호근·김시천·김경희(2014). 동양철학 산책.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서울, pp. 79-96.

김학주 역주(2010). 공자 새로 옮긴 시경(詩經). 명문당, 서울, pp. 618-635.

김학주 역주(2013). 맹자.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서울, pp. 695-729.

대유학당 역주(2009). 손에 잡히는 맹자. 대유학당, 서울, pp. 7-12, 118.

박경환(2012) 옮김: 맹자. 홍익출판사, 서울, pp. 15-30.

박구병·신성곤·원지연·윤혜영·이광수·이한규·이혜령·이희수·조흥국(2016). 세계의 역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서울, pp. 3-20.

박명규(2015). 춘추전국사. 웅진지식하우스, 파주, pp. 308-311.

박한제·김형종·김병준(2015). 아틀라스 중국사. 사계절출판사, 파주, pp. 22-29.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2017). 맹자. NAVER 지식백과, pp. 1-2.

이해원(2010). 중국의 음식문화. 고려대학교출판부, pp. 37-38.

장철환(2017). 중국고대사. 북랩, 서울, pp. 250-417.

조관희 평역(2014). 맹자. 청아출판사, 파주, pp. 46-60, 178-244, 246-303.

조영·고성희·김선아(2014). 식생활과 문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서울, pp. 147-148.

홍윤호(2016). 논어에 언급된 공자(춘추)시대의 음식문화. **생활과학연구**, ***26***, 169-174.

Wikipedia(2017). Mencius. http://en.wikipedia.org/wiki/Mencius, pp. 1-8.